

# 16-17세기 福建社會의 狀況

- 沿海와 內陸의 차이를 중심으로 -

李 載 貞\*

<목 차>

1. 머리말
2. 統治力의 弛緩
3. 社會·經濟的 變化
4. 社會變化的 地域的 差異
5. 맺음말

---

## 1. 머리말

明朝는 15세기 중엽 이후 商品·貨幣經濟의 發達, 農村의 階層分化, 人口移動, 變亂의 發生 등으로 사회 전반에 變化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唐代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宋代에 이미 인구과잉으로 인한 토지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商工業과 海外貿易이 발달한 福建地域에서도, 明 中期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된 사회변화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특히 16-17세기 복건사회는 상공업과 해상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인구가동이 빈번하였을 뿐 아니라, 倭寇·海寇의 소란, 鄭成功을 비롯한 南明政權의 활동으로 인한 戰亂이 계속되는 등 政治的·社會的 變化가 가속화된 시기였다.

福建은 하나의 行政區域으로서의 統一性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山脈과 水系에 의한 分節로 지역내부에서 自然·社會的 環境에 차이가

---

\* 고려대 강사.

크며, 각 지역들이 분산 고립적이어서 서로 접촉하기 어려웠다.<sup>2)</sup> 이는 言語의 측면에서도 나타나, 오늘날에도 閩語는 漢語 方言 가운데서도 가장 내부 분기가 많은 방언으로 알려져 있다.<sup>3)</sup> 특히 복건의 沿海地域과 內陸地域은 自然環境이나 商工業의 발달 정도, 文化水準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交通路와 商品, 人口의 移動 등의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황이었다.<sup>4)</sup>

16-17세기 복건 사회의 상황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변화상, 반란의 발생, 南明 政權의 活動 등 다방면에 걸쳐 서술하고 있지만, 이 시기 사회 변화상이 복건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또 이에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피상적인 분석을 하는 데 그쳤다.

- 
- 2) 복건 경내는 산맥이 중첩되어 중부에 戴雲山脈, 서북에 杉嶺山脈, 서남에는 博平嶺山脈, 閩東에도 鷲峰山脈, 太姥山脈 등이 분포되어 있다. 주요 하천으로는 閩江, 九龍江, 晉江, 汀江, 長溪 등이 있으며, 이들 하천들은 산맥과 교차하는 방향으로 흘러 각각 독립된 수계를 이루어 유역간의 독립과 분절성이 강하다.
- 3) 相田信, 《問俗錄》解説, 「清代の基層社會」, 小島晉治等譯, 《問俗錄》, 平凡社, 1988.
- 4) 楊國禎, 「明清東南區域平原與山區經濟研究序論」, 《中國社會經濟史研究》, 1995-2에서 江蘇·浙江·福建 등 中國 東南沿海에 속한 지역들은 그 내부에서 경제발전의 정도가 다르며, 특히 內陸의 山地와 沿海地域은 地理環境이나 경제발전 정도에 있어 차이점이 많다고 하였다. 실제로 복건지역 내에서도 연해와 내륙은 구분되는 점이 많은데, 예를 들어 연해지역의 경우는 宋代에 1년에 버를 두 번 수확할 수 있었으나, 내륙 산지에서는 한 번밖에 수확할 수 없었다.(唐文基 主編, 《福建經濟史》 上冊, 2, 福建師範大學歷史系, 未出刊本, 22쪽) 이러한 자연환경의 차이 등으로 당시 인들도 복건을 내륙과 연해로 구분하여 인식하였다. 특히 송대에는 內陸地域에 建州, 南劍州, 汀州, 邵武軍 등 4개의 州·軍이 설치되고, 沿海에 福州府, 泉州府, 漳州府, 興化軍 등 4개의 州·軍이 설치되었으므로 각각을 上四州, 下四州로 부르기도 하였다.(陳景盛, 《福建歷代人口論考》, 福建人民出版社, 1991, 72쪽) 明代 福建의 행정구역은 내륙에 建寧府, 邵武府, 延平府, 汀州府 등 4개의 府와 연해의 福寧州, 福州府, 興化府, 泉州府, 漳州府로 8府 1州였는데 송대와 마찬가지로 전자를 上府, 후자를 下府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복건 지역 내부에서의 地域間 差異에 중점을 두고 16-17세기 복건사회의 상황을 서술하려고 한다. 먼저 1절에서는 복건지역의 行政力과 軍事力의 전반적인 변화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社會經濟的 變化와 人口移動, 風俗의 變化 등을 서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가 복건 내 각 지역에서, 특히 沿海地域과 內陸地域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구체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복건 지역이 어떤 分節 構造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 2. 統治力의 弛緩

中國 歷代 王朝는 地方 治安과 徵稅를 위해 戶數單位의 地域行政組織을 편성하였는데, 明朝에서는 이를 위해 洪武初 福建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里甲制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15세기 중엽부터 전국적으로 이 갑체제는 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즉 이갑의 戶數規定이 준수되지 않았으며, 戶籍簿 작성시에도 前期의 호적부를 그대로 베껴 작성한다든지, 호구를 은닉하는 등 제폐단이 속출하여 세금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복건지역에서는 14세기에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일찍부터 이갑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sup>5)</sup>

복건지역은 지형적으로 볼 때 內陸으로 연한 3방면은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고 東南은 大海와 접해 있어 외부와의 교통이 매우 불편하였다. 또 중국 서북이 중앙아시아로의 통로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정복되었고 廣東과 海南島는 남해의 통로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중앙의 지배하에 두어진 것에 비해, 복건은 군사적·정치적으로도 그리 중요성을

5) 吳金成, 「明末清初의 社會變化」, 《講座中國史 4-帝國秩序의 完成》, 知識產業社 1989, 92-96쪽에서 15세기 중엽 이후 전국적으로 里甲制 秩序가 變質·解體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중앙정부로부터 방치되었다. 따라서 복건은 중국의 어떤 지역보다 개발이 늦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영토화된 것은 군사력, 정치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移民에 의해 서서히 침투된 결과였다.<sup>6)</sup> 이로 인하여 이 지역에 이주한 宗族들은 각각의 지역에서 강고한 세력을 형성하였다.<sup>7)</sup>

또한 山地가 많은 복건의 지형은 행정적인 통제의 난맥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方言이 심하여 지방관과 지역주민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행정관이 이 지역에 대한 統制력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胥吏 등이 이를 틈타 농간을 부리기도 하였다. 《雲霄廳志》의 地域 敝俗에 대한 기록에서는 백성들이 官音에 익숙하지 않아 소송 사건이 있을 때는 里胥들이 번역을 해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8)</sup> 乾隆 60년에서 嘉慶 5년까지 福建按察使를 지낸 李殿圖는 복건 통치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서술한 기록을 남겼는데, 여기서 그는 胥役 등이 지역을 좌지우지하며 자신이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또 언어가 소통되지 않아 비밀을 유지하려 해도 유지할 수 없음을 토로하였다.<sup>9)</sup> 이 기록은 건륭년간의 기록이지만 방언으로 인한 지방관과 지역민 사이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명대의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건지역은 산지가 많아 전토의 면적이 매우 적었기 때

6) 王育德, 「福建の開發と福建語の成立」, 《日本中國學會報》 21, 1969.

7) 예를 들어, 《福安縣志》의 풍속에서는 '故家居族이 唐宋이래 거하여 각각 문호를 자랑하며 客姓들이 그 향에 잡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萬曆 《福安縣志》 권 1, 風俗. 125쪽)

8) 嘉慶 《雲霄廳志》 권 3, 民風, 敝俗, 138쪽. 嘉慶年間에 쓰여진 것이지만 그 내용은 명대의 지방지를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많고 특히 방언에 대한 것은 이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건의 일반적 특성이었다.

9) 李殿圖撰, 黃胎楫編, 《李石渠先生治閩政略》(光緒元年 泉州梅石山房刊本)》, 4쪽.

문에, 稅量徵收面에서 복건이 갖는 중요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졌다. 명대 전국 전토면적에서 복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洪武 25년에 1.72%, 弘治 15년 2.17%, 萬曆 6년 1.91%로 시기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2% 전후로 그 비중이 매우 낮다. 또 같은 시기 稅糧 즉 米의 징수면에서도 3.95% 3.84% 3.86%인데, 이는 貴州, 雲南, 廣西省 다음으로 적은 숫자로 중국전체를 놓고 볼 때 복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sup>10)</sup> 세량징수면에서 복건이 갖는 중요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진다는 사실 역시, 중앙정부의 개입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지형적,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지역은 中央政府의 개입 정도가 낮았고 단일한 행정구역으로서의 통일성을 이루기 어려웠다. 특히 正德·嘉靖期 즉 16세기에 이르러서 통제력의 해이는 더욱 심화되었다고 생각된다. 里甲制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正德·嘉靖期부터 일련의 稅制改革이 실시되었는데, 복건지역에서 세제개혁이 선구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은 그만큼 이 지역에서 이감제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다.<sup>11)</sup> 또 세제를 비롯한 일련의 개혁이 이루어진 후에도 역시 서리들의 농간 등에 의한 폐단은 여전하였다.

한편 軍事力의 면에서도 16-17세기에 군대의 수가 감소하고 기강이 해이해지는 등 통제력의 약화가 현저하였다. 즉 명초에 복건지역은 海

10) 梁方仲編著, 《中國歷代 戶口 田地 田賦統計》, 上海人民出版社, 1980, 乙表 33과 乙表 37. 이 통계에 의하면 복건의 전토비중에 비해 세량비중이 다소 높은 듯이 보이지만 복건의 세량은 거의가 米로 징수되고 麥은 전국비중에서 0.02%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복건보다 米의 징수비중이 낮은 四川의 경우 麥의 징수 비중이 복건보다 높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乙表 62에 의하면 청대에도 복건의 田地는 全國의 2%에 미치지 못한다.

11) 예를 들어, 天順年間에 이미 福建巡按御使 盛顯이 均徭法의 일종인 十段法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일조편법의 선구적 형태였다. (《閩書》 권 45, 文蒞志, 盛顯에 대한 傳記, 1136쪽. 岩見宏, 「明의 嘉靖前後に於ける賦役改革について」, 《明代徭役制度の研究》, 同朋舍, 1986, 참조)

寇·倭寇의 침입에 대비하여, 지역 규모에 비해 상당히 重兵을 배치하였다.<sup>12)</sup> 그런데 명 중기 이후 衛所軍이 도망하거나, 군사제도의 기반이 되는 軍屯制가 해이해졌다. 명초의 兵額 11만 9천여명은 《閩書》가 쓰여진 명말 당시에는 연해지역의 경우 8만 7,300여명에서 3만 2,300여명으로 37/100 정도 현저히 줄었다.<sup>13)</sup> 또 《閩書》의 屯田에 대한 기록에서 명초에는 屯政이 엄밀하였으나 이후 점차 해이해져 군인이 도망하거나 둔전이 豪強 등에게 침탈당하는 등의 폐단이 점차 심해졌다고 한다. 萬曆 10년에 丈量을 통하여 상실된 둔전을 회복하려 하였으나 豪民들과 간악한 전호들이 농간을 부려 결국 폐단을 개혁하지 못하였고, 국초의 屯法이 이에 이르러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하였다.<sup>14)</sup>

따라서 병사들이 잇달아 兵變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정덕 13년(1518) 福建 三衛軍士들이 秦貴 葉元寶 등의 주도하에 3개월간의 밀린 병향을 요구하면서 布政使를 포로로 잡고 시위를 한 일이 있었다. 가정 41년 3월에는 監軍通判이 古田縣 山寇의 소탕에 능장을 부린 책임을 물어 4개 대장을 살해하자 三衛軍士 郭天養 등이 이에 반항하여 난을 일으켰고, 10월에 다시 병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였다.<sup>15)</sup> 복주 삼위군의 이러한 시위들은 省城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 병사체계의 이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嘉靖後期에 倭寇·海寇들이 연해지역에서 소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군사력의 약화가 한 원인이 되었다. 또 위소군 외에 각 지역에 설치된 民兵들도 역시 募兵制에 의해 질이 저하되어 제대로 방어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병된 군사들은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존재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역 유력자들은 외부 세력의

12) 朱維幹,《福建史稿》下, 福建教育出版社, 1985, 169쪽.

13) 何喬遠,《閩書》(崇禎 2년刊, 廈門大學《閩書》校點組 校點, 福建人民出版社, 1994) 권 14, 杆圍志 999-1002쪽.

14) 《閩書》 권 39, 版籍志, 屯田 965-966.

15) 道光《福建通志》 권 267, 明外紀.

침입에 대비하여, 또는 자신의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自體 武裝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 3. 社會 · 經濟的 變化

명 중기 이후 중국사회는 전반적으로 商品 · 貨幣經濟가 展開되는 와중에 있었으며, 복건지역은 일찍부터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이러한 화폐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의 하나였다. 따라서 16-17세기 복건지역은 통제력의 해이와 함께, 사회 경제적으로도 여러가지 면에서 변화가 많았다.

우선 이 시기 복건사회에서는 人口增加로 인한 土地不足 現狀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2>를 통해 明清時代 福建地域의 戶口 統計를 보면 明 中期 이후 인구가 계속 감소하였다가 淸 乾隆期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嘉靖年間 倭寇의 소란과 明末淸初 戰亂期에 실제로 인구가 감소한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통계의 신빙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명대 각 地方志에서 호구통계의 잘못을 지적한 예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莆田縣의 인구변화와 관련된 淸初의 기록을 보면, 嘉靖後期 倭亂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왜구가 평정된 후 崇禎末까지 100여년간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되어 雍正年間에는 인구가 최고치였다고 한다.<sup>16)</sup>

그러므로 인구의 미증가 또는 호구 감소의 원인은 호구의 미등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지방관의 지역에 대한 통제력이 미약하여 호구통계가胥吏들의 손에 장악되어, 호구의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의 인구나 장부상의 인구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실제 인구는 증가추세였다고 보는 것이 타

16) 余繩, 《莆變紀事》(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淸史研究室編, 淸史資料 1集, 中華書局, 1980), 「人稀」, 135-136쪽.

당하다.

다음 土地의 상황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자. 통계자료상에 나타난 역대의 경지수를 보면 洪武 26년(1393) 146,260百畝, 弘治 15년(1502) 135,260百畝, 嘉靖 21년(1542) 135,775百畝, 萬曆 6년(1578) 134,225百畝이며, 順治 18년(1661) 103,457.54百畝, 康熙 24년(1685) 111,995.48百畝, 雍正 2년(1724) 313,071百畝, 乾隆 18년(1753) 136,206.88百畝, 嘉慶 17년(1812) 136,536.62百畝로 홍무 26년을 100으로 잡을 때 홍치 15년 92.44% 만력 6년 91.77%로 줄고 있으며, 청초에도 계속 줄다가 건륭 연간에 와서 명초의 수준에 가까워진다.<sup>17)</sup>

토지 역시 세금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은닉하였으므로 통계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토지 증가는 미미하였다고 생각된다. 복건성은 華中, 華北地域과 달리 산이 많고 평지가 적은 곳이다. 해발 2158m의 武夷山地 黃崗山을 최고봉으로 하여 해발 500m 이상의 토지가 3/4을 점하며, 盆地의 曲底部와 연해의 漳州, 福州, 莆仙, 泉州 4개 평원이 평지를 이루고 있으나, 분지의 曲底部는 소규모이고 연해 역시 충적평야로 하북이나 강소지역과 같은 넓은 평원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산지와 구릉지가 전 성의 95%를 점하고 상대적으로 평탄한 지형은 전체의 5%에 지나지 않는다.<sup>18)</sup> 이로 인하여 토지를 개발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으므로 복건지구의 可耕面積은 명대 중엽 이후 당시의 농업수준에서 개발가능한 지역은 거의 다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9)</sup>

一人當 耕地面積에 대한 統計에서도 福建地域의 土地不足 상황을 볼

17) 이 통계숫자는 梁方仲, 앞의 책, 乙表 29 61 등에 의한 것이다. 이 가운데 雍正 2년의 갑작스런 田地증가에 대해 梁方仲은 誤記일 것이라고 하였다.

18) 陳佳源主編, 《福建省經濟地理》, 新華出版社, 1991, 13-15쪽.

19) 林麗月, 「晚明福建的食米不足問題」, 《歷史學報》(國立臺灣師範大學) 15期, 1987, 4쪽.

수 있다. 예를 들어 萬曆 6년 福建의 戶當 耕地面積이 26.05畝로 13布政司 평균인 70.72畝에 훨씬 못미치며, 貴州·雲南에 이어 3번째로 경지면적이 협소한 지역이다. 또 이웃한 廣東의 48.40畝, 江西의 29.91畝, 浙江의 30.28畝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20)</sup> 그리고 외지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식량이 부족하여 수입해야 했던 것 등은 이러한 토지부족현상을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6-17세기 복건지역에서는 토지부족이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토지부족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메꾸기 위하여 복건에서는 연해지역, 내륙지역 모두 상품생산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嘉靖年間 王世懋는 《閩部疏》에서

福州의 紬絲, 漳州의 紗絹, 泉州의 藍, 福州 延平의 鐵, 福州 漳州的 橋, 福州 興化的 荔枝, 泉州 漳州的 糖, 順昌의 종이는 分水嶺과 浦城의 小關을 넘어 가지 않는 날이 없고 아래로 吳越까지 가는 것이 물이 흐르는 것과 같다. 大海를 향해하여 가는 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복건의 山地에서 생산되는 것은 松杉이외에 대나무 茶 烏臼가 있는데 대나무는 종이를 만들 수 있고 차는 기름을 만들 수 있으며 烏臼는 燭을 만들 수 있다.<sup>21)</sup>

라 하여 명대 복건지역 상품생산의 활발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내륙의 상사부는 산지가 많은 곳으로 茶를 비롯하여 산지에서 나는 특산물과 그것을 가공한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복건의 산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茶로 송대에 이미 상품으로 생산되었다. 명대에 建寧, 延平, 泉州府 소속 각지에서 차가 많이 재배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재배가 많고 품질이 좋은 것은 閩北의 武夷山茶였다. 특히 崇安縣의

20) 梁方仲, 앞의 책 乙表 32. 乙表 71에서 康熙년 24의 경우를 보면 복건의 일인당 경지면적은 8.03畝로 전국 평균 25.96畝에 훨씬 못미쳐 청대에 토지부족 현상은 더욱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21) 王世懋, 《閩部疏》.

경우에는 '9曲의 내 수백가가 茶業을 생업으로 삼아 매년 생산되는 것이 10만 觔'<sup>22)</sup>이었다.

차와 함께 복건의 중요한 상품작물로 손꼽히는 사탕수수와 거기에서 추출한 糖, 그리고 연초인데 이들 상품작물은 연해지역에서 주로 재배되었다. 명말 甘蔗(사탕수수)는 복건과 광둥에서 많이 생산되어 다른 지역의 생산은 합하여도 1/10에 미치지 못하였는데,<sup>23)</sup> 특히 泉州, 漳州 地域에서 많이 재배되었다. 萬曆年間에 쓰여진 《閩大記》에는 '糖은 여러 郡에서 생산되는데 천주, 장주에서 성행하였다. 紅白糖糖이 있는데 사방에 판매한다고 한다.'<sup>24)</sup> 고 기록하고 있다.

담배는 만력년간 루손을 거쳐 복건에 전입되고, 복건에서 다시 廣東, 江浙 등으로 전파되었다.<sup>25)</sup> 담배의 재배는 주로 천주, 장주지역에서 시작되어 天啓, 崇禎年間에는 연초재배는 복건지역에서 상당히 보편화되었다. 淸初에 郭起元은 '복건에서 연초를 심어 토지의 10에 6,7을 소모하여 식량을 臺灣, 建寧, 延平 등지에 의지하게 되었으며, 담배의 종식을 엄금하여도 小民들이 이익을 추구하여 다시 담배를 재배했다'<sup>26)</sup> 고 하였다. 龍溪縣에서도 사탕수수와 연초를 재배하면 이익이 배가 되어 이것이 오곡의 이익을 빼앗아 토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고,<sup>27)</sup> 《平和縣志》에서도 청초의 상황으로 최근에 담배, 사탕수수 재배 등 상품작물을 심는 것이 유행이라 하였다.<sup>28)</sup>

상품작물 재배의 성행은 이의 수매를 위한 상인의 왕래를 빈번하게

22) 嘉慶 《崇安縣志》 권 2, 物産에서 명대의 刊本을 인용하여 '環九曲之內, 不下數百家, 皆以種茶爲業, 歲所山數萬觔'이라 하였다.

23) 宋應星, 《天工開物》 권 6, 甘嗜, 蔗種, 162쪽(鍾廣言注釋, 中華書局, 1988)

24) 王應山, 《閩大記》 권 11, 食貨考.

25) 林麗月, 앞의 논문, 168쪽.

26) 郭起元, 「論閩省務本節用書」, 《皇朝經世文編》 권 36, 戶政 11, 農政 上.

27) 乾隆 《龍溪縣志》 권 10, 風俗.

28) 康熙 《平和縣志》 권 10, 土風.

했다. 승안현에서 차가 재배되는 시기에는 盛市를 이루었던 사실이 《閩政領要》 외에 다른 곳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으며, 將樂縣에서도 객상들이 왕래하면서 종이를 수매하였다.<sup>29)</sup> 때로는 상인들이 직접 이 지역에 들어와서 경영을 하는 경우도 보인다. 南平縣에서는 만력, 승정년간 文筆山에서 奸商들이 산을 개발하여 灰, 石 등의 이익을 도모하여 文運을 고갈시킨다 하여 여러차례 금령이 내려졌으나 실효가 없었다는 기록이 있어, 상품생산 지향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였음을 알 수 있다.<sup>30)</sup>

해안지역은 토지가 부족한 반면 리아스식 해안과 群小 島嶼로 良港, 良灣을 이루고 있고 배후의 산지에서는 좋은 선박 재료를 제공하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일찍부터 해상활동을 하여, 해상무역과 화폐무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발달하였다.<sup>31)</sup> 명대에도 연해지역민 중, 바다를 이용하여 어업을 하거나 무역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많았다. 물론 明朝의 海禁政策은 해상무역의 자유로운 발전에 장애요소가 되었으나, 명 중기 이후 금령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이 무역을 진행한 사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隆慶年間에 海禁조치를 완화하기에 이른 것은 해상무역 발전 추세에 국가도 응할 수 밖에 없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해상무역의 성행으로 연해지역의 항구들도 무역항으로 발전하였는데, 특히 15세기 이후에는 송대부터 국제적인 무역항으로서의 지위를 누렸던 泉州를 제치고 漳州의 月港이 교역장으로 부각되었다. 福建에서 通番하려는 자는 모두 漳州의 月港에서 출발하여 月港은 상고가 운집하는 곳이 되었으며,<sup>32)</sup> 成化 弘治년간에는 蘇

29) 乾隆 《將樂縣志》 권 5, 土産.

30) 嘉慶 《南平縣志》 人部, 권 23, 藝文. 陳正謨의 「禁治文筆山記」.

31) 佐久間重男, 「明代海外 私貿易의 歷史的 背景--福建省を中心として-」, 《史學雜誌》, 62-1, 1953; 片山誠二郎, 「明代海上密貿易と沿海地方郷紳層」, 《歷史學研究》164 등 참조.

32) 佚名, 《嘉靖東南平倭通錄》, 《中國歷史研究資料叢書, 倭變事略》, 上海書店, 1982) 3쪽. '閩人通番 皆自漳州月港出洋'이라 하였다.

州, 杭州와 맞먹을 정도로 변화하였다.<sup>33)</sup>

상품경제의 발달은 내륙의 교통로 개발을 촉진시켰고, 이를 통해 인구의 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건지역은 토지가 부족하였으므로, 江西, 廣東, 浙江 등 인근지역과 연결된 유통로를 따라 많은 복건인들이 이들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즉 閩北의 武夷山 일대, 浙江과 江西의 交界地域인 仙霞嶺 일대 등 禁山區에는 복건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江西 袁州府의 경우 최초의 상황으로 백년 이래 토지는 넓고 인구가 희박하여, 居民들이 복건의 여러 不逞한 무리들을 불러들여, 산을 임대하여 麻를 종식하는 복건인들이 십여만에 이르렀고 한다.<sup>34)</sup> 明 萬曆年間 福建 龍巖지역에서 강서 袁州府로 가 麻를 재배하던 이주민들은 봄에 袁州 山區로 와서 麻를 심고 수확이 끝난 후 공구 및 간단한 생활 도구를 棚 내에 보관해 두어 복건으로 돌아가고 다음해 봄에 다시 와서 경작하였다.<sup>35)</sup> 이처럼 의지로 이주하여 산지를 개간하는 자들은 麻, 菁, 담배, 광물 등 상품작물을 재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들이다. 廣東지역과 접해 있는 汀州府와 漳州府의 거민들은 광동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하였고, 해상무역을 하는 자들은 福建의 漳州府와 廣東의 潮州府를 넘나들면서 활동하였다. 토지에서 이탈한 백성들은 해외무역의 발전에 따라 동남아, 일본 등지로 왕래, 이주하기도 하고 臺灣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1926년의 조사에 의하면 대만인 중 福建祖籍이 83%이고 그 가운데 79.9%가 泉州府와 漳州府인이다.<sup>36)</sup> 이는 주로 연해의 거민들이 해외로 이주하였음을 의미한다. 물론 인근한 타지

33) 乾隆 《海澄縣志》 권 15, 風土와 권 1, 輿地志 建置.

34) 傅衣凌, 「明清之際의 奴變和 佃農解放運動」, 《明清農村社會經濟》, 三聯書店 1961, 116쪽.

35) 劉敏 「論清代棚民的戶籍問題」, 《中國社會經濟史研究》 1983-1, 1쪽.

36) 元廷植, 「明清時代 福建의 人口 移動과 社會 變化」, 《서울대東洋史學科論集》 17, 1993, 51-52쪽.

역에서 복건지역으로 이주해 들어오는 자들도 있었고,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農村의 인구가 都市 地域으로 이주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상공업의 발달과 인구의 유동 등으로 16-17세기 복건지역에 변화가 발생하였음은 복건 각 地方志의 풍속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甌寧縣志》에서 弘治 舊志를 이용하여 ‘지금에 이르러 풍속이 더욱 나빠졌다’<sup>37)</sup>고 하여 弘治년간부터 이 지역에 변화의 조짐이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沙縣에서는 嘉靖 중엽 이후 습속이 사치함에 이르고 商賈의 무리가 他邑보다 많았다고 전한다.<sup>38)</sup> 연해지역에 속하는 南安縣에서는 과거에는 士民이 각각 본업에 종사하고 근검하였으나 隆慶, 萬曆 이후에는 풍속이 점차 사치하고 경박해졌으며, 康熙年間に 이르러서는 더욱 더 나빠져 막을 도리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다.<sup>39)</sup> 漳州府 長泰縣의 경우에도 嘉靖 初年까지는 아직 백성들이 검박하고 사치를 좋아하지 않으며 상업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隆慶, 萬曆 경에는 백성들의 풍속이 점차 변하여 사나와지고 사치함을 서로 자랑했다고 한다.<sup>40)</sup> 이러한 기록들은 풍속의 변화가 상공업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음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4. 社會變化의 地域的 差異

16-17세기 統治力의 弛緩과 商工業의 發達 등 사회변화는 福建 全省의 現狀이었지만 변화의 정도에 있어서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하에서는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으로 대별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고, 또 각 지역 내부의 차이에 대해서도 서술하고자 한다.

37) 康熙 《甌寧縣志》 권 7, 風俗.

38) 康熙 《沙縣志》 권 1, 方輿志, 風俗.

39) 康熙 《南安縣志》 권 20, 雜誌 2, 風俗 1187쪽.

40) 林麗月, 앞의 논문, 178쪽.

먼저 統治力의 浸透程度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해와 내륙의 歲糧 徵收水準, 官職의 設置商況, 軍事力의 比重, 變亂의 발생빈도 등을 살펴보자.

<표 1>의 嘉靖·隆慶年間 호당 세량수는 泉州府, 漳州府, 興化府, 福寧州, 福州府, 邵武府, 建寧府, 延平府, 汀州府의 順으로, 沿海地域에 소재한 下府의 세량부담액이 內陸에 소재한 上府의 세량부담액에 비해 전반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호구와 토지의 통계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지역마다 토지생산량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세량부담액의 차이는 우선 연해지역의 府들이 내륙지역에 비해 官의 통제력이 강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4>와 <표 5>를 보면, 官職 또는 官署의 설치 면에서도 연해지역이 내륙지역에 비해 더 정비된 모습이었다. 그런데 연해지역 중 漳州府의 경우는 泉州府 다음으로 호당 세량징수액이 많은 지역이지만, 官署나 官職의 설치면에서는 연해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정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장주부가 연해의 다른 지역에 비해 관의 침투도가 낮은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장주부의 경우는 正德, 嘉靖年間 즉 16세기에 와서 4개의 현이 신설되어,<sup>41)</sup> 명중기 이전까지는 아직 국가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내륙지역의 경우는 연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관의 통치력이 미약한데, 그 중에서 建寧府의 통제력이 가장 강하였고 汀州府의 관직설치가 가장 정비되지 않았다.

<표 6> <표 7> <표 8>을 통해 軍事力의 면에서도 연해지역이 내륙지역에 비해 군사의 배치가 많아 연해지역의 통제력이 강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6-17세기에는 연해, 내륙 모두 군사력이 약화되었다. 연해지역 중에서 漳州府의 군사력 감소가 가장 현저하였으며

41) 陳景盛, 《福建歷代人口論考》, 福建人民出版社, 1991, 289-293쪽.

그 다음이 泉州府이고, 내륙지역에서는 汀州府의 군사력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들로 볼 때 연해지역이 내륙에 비해 통치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연해지역 중에는 明末에 이르러 泉州·漳州地域의 통치력의 모순이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福州·福寧·興化府는 省城과 인접한 지역으로 군사력의 감소도에 있어서나 세량징수면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泉州府와 漳州府, 그 중에서도 漳州府는 군사력의 감소가 가장 현격한 한편 세량의 징수도는 상당히 높다. 이는 官權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착취도만 강화한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모순은 가중되었을 것이다. 내륙지역의 경우는 建寧府의 상황이 가장 안정되었고, 汀州府의 사회모순이 가장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0>의 變亂의 發生頻度에서도 福建 내 각 地域間의 差異가 나타난다. 沿海地域에서는 泉州·漳州에서 變亂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이 관의 통제력이 약하고 사회 모순이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내륙지역에서는 汀州府와 延平府의 변란 발생빈도가 높아 역시 내륙지역 중에서 이 두 지역의 통제력이 약하였음을 알 수 있다.

社會·經濟의 變化狀에서도 이러한 지역차를 엿볼 수 있다. 즉 연해지역이 내륙지역에 비해 경제의 발전상이 두드러졌고, 또 이로 인한 사회변화가 급격하였다. 우선 각지역 風俗에 관한 기록을 보면 연해지역이 내륙지역에 비해 풍속의 각박함, 上下秩序의 顛倒 등에 대해 서술한 예가 더 많다. 대개 명말청초까지도 내륙지역의 각지에서는 상업에 종사하는 자가 적다는 기록이 많은데 비해, 연해지역은 상공업의 발달이 두드러졌음을 기록한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륙지역에 있는 泰寧縣에서는 乾隆年間에도 商賈가 모여들지 않고 백성들이 가난했다고 하며, 건륭 《建寧縣志》에서도 舊志를 인용하여 상업행위를 하는 자가 적다고 기록하고 있다.<sup>42)</sup> 政化縣에서도 道光年

間에 과거에는 富實巨賈가 적고 말리를 쫓는 자가 적었다고 기록하고 있다.<sup>43)</sup> 따라서 내륙지역의 백성들은 향촌을 쉽게 떠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며, 상업을 하더라도 영세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복건 서남부에 위치한 連城縣의 경우에 청대에 상행위를 하는 자가 많다고 기록하면서도 그 이익은 적다고 하여 상업활동을 하더라도 소규모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44)</sup> 강희년간의 《歸化縣志》에서도 大商巨賈가 없고 市販을 생업으로 하여 가난하였다고 하는 기록을 볼 수 있다.<sup>45)</sup>

내륙지역의 백성들이 대체로 자신의 고향을 쉽게 떠나지 않는데 비하여 해안지역에 거주한 자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 쉽게 村里를 떠나 바다로 나아간다. 《閩書》의 풍속에 관한 기록에서 福州府의 경우를 보면 내륙지역이나 물자가 풍부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서술에서는 비교적 풍속이 소박하다고 한 반면 福清縣에 대한 서술에서는 海産物의 이익이 많아 사방 사람들이 잡거하고 풍속이 사나우며 商賈가 성행한다고 서술하고 있다.<sup>46)</sup> 《平和縣志》에 의하면 상인들은 吳越楚廣까지 나가며 상업으로 巨富를 이루는 자도 있다고 한다. 또 토지가 적기 때문에 末利를 쫓아 쉽게 고향을 떠난다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 巨富를 이루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sup>47)</sup> 해상무역이 특히 발달한 海澄縣의 당시 발달상황에 대해서는 '부가들은 자본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은 고용되어 중국의 산물을 싣고 먼 나라로 나가 그 방물을 바꾸어 돌아오는데 그 이익이 10배가 되어 백성들이 이를 기꺼이 한다... 巨賈들이 다투어 경쟁한다'고 기록하고 있다.<sup>48)</sup> 내륙지역에서는 巨商大賈가 없으며 상

42) 乾隆 《泰寧縣志》 권 1, 輿地志, 風俗; 乾隆 《建寧縣志》 권 9 風俗.

43) 道光 《政和縣志》 권 1, 風俗.

44) 乾隆 《汀州府志》 권 1, 風俗.

45) 康熙 《歸化縣志》 권 1, 輿地志, 風俗.

46) 《閩書》 권 38, 風俗志, 941-942쪽.

47) 康熙 《平和縣志》 권 10, 土風. 또 乾隆 《龍溪縣志》 권 10, 風俗에서도 大商巨賈들이 算板을 들고 해양을 나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업을 하더라도 이익이 많지 않다는 것과 대조적으로 연해지역에서는 해상활동을 통하여 거부를 이루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연해지역에 해상무역이 발달한 것은 한편으로는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하여 생존환경이 불안정하고 빈부의 부침이 더 컸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상의 차이는 명대 복건 각 지역의 進士 輩出面에서도 나타난다. <표 9>의 진사배출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연해지역에 비해 내륙지역이 낮다. 연해지역 내에서 福州府는 진사배출자가 각 시기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興化府는 진사배출자가 연해지역 중에서도 월등히 많다. 泉州와 漳州의 진사배출도를 보면, 명 전기에는 진사 배출수가 미미하여 오히려 내륙의 建寧府보다 낮았다. 그러다가 16세기 이후 갑자기 상승한다.

福州府는 省城이 있는 곳이므로 진사배출자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興化府는 토지가 비옥하여 泉州府와 漳州府에 비해 해상무역이 비교적 덜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독서를 할 수 있는 계층이 泉州府나 漳州府에 보다 科舉志向的이었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천주부와 장주부에 16세기 이후 과거합격자가 급격히 많아진 것은 이들 지역이 명 중기 이후 상공업과 해외무역의 발달로 경제적으로 급성장하였음을 의미할 것이다.<sup>49)</sup>

내륙지역의 진사배출은 연해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다. 그 가운데 建寧府가 首位를 차지하고, 邵武府가 중간, 延平府와 汀州府가 全省에서 가장 낮은 배출율을 보인다. 건녕부는 토지가 상당히 비옥한 곳이고 영역이나 인구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 아니라 개발의

48) 乾隆 《海澄縣志》 권 11, 風土志, 風俗考.

49) Ping-ti Ho, 賈永祿外驛, 《中國科舉制度的社會史的研究》, 275쪽에서도 泉州 漳州 등 복건 中南部 연안은 과거합격자가 많을 뿐 아니라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이 매우 높은 사회이동율을 보인 지역이라고 하였다.

연원면에서나 문화적인 면에서도 복건 내륙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건녕부의 진사배출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명 중기 이후 건녕부의 진사배출율이 현격히 떨어졌다. 이러한 建寧府의 쇠락을 명중기 이후 해상교통로가 발달함으로써 建寧의 육로가 교통로로서 가치가 떨어지고 泉州·漳州 등지가 교통의 중심지가 된 것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sup>50)</sup>

土地와 人口狀況에서도 내륙과 연해의 차이, 또 내륙 연해 내부에서의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3>의 인구나 토지상황을 보면 연해지역, 그 중에서도 泉州府와 漳州府의 인구증가율과 토지에 대한 인구압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이는 人口移動의 면에서도 나타난다. 즉 연해지역 중에서도 천주부와 장주부의 인구가 외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sup>51)</sup> 이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복건 각지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海路를 따라 廣東의 潮州府 또는 臺灣, 東南亞 등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내륙지역은 연해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인구압이 낮은 상황이었다. 이는 내륙지역의 府들이 대체로 쌀을 연해지역에 수출하는 지역이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汀州府는 상황이 가장 나빴고, 식량이 부족하여 쌀을 수입하는 지역이었다.<sup>52)</sup> 이는 인구가 이동 상황에서도 나타나, 내륙지역 중에서 정주는 외지로의 인구유출이 많이 보인다.<sup>53)</sup>

50) Evelyn Sakakida Rawsy, *AGRICULTURAL CHANGE AND THE PEASANT ECONOMY OF SOUTH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에서 이와 같이 해석하였다.

51) 陳鏗, 「明清福建人口的經濟性遷移」, 《人口與經濟》 1985-2, 40쪽에서 명청시대 복건의 인구유출 형태는 下府民의 閩北이동과 漳州民의 閩西로의 이동이 주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52) 德福 《閩政頌要》(抄本). 명청시대 복건의 쌀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林麗月, 「晚明福建的食米不足問題」, 《歷史學報》(國立臺灣師範大學) 15期, 1987; 三木聰, 「抗租と阻米-明末清初 福建を中心として」, 《東洋史研究》 45-4, 1987 참조.

53) 예를 들어 청초에 江西省 贛州府 寧都縣에서 살았던 魏禮의 문집에서는

이상에서 16-17세기 福建地域은 沿海地域이 內陸地域에 비해 사회 변화가 급속하고, 사회모순이 더 집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해지역 중에서도 漳州·泉州府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인구이동 등의 현상이 발생한 지역이었다. 내륙지역 중에서는 汀州府의 상황이 가장 열악하고 관의 통제력이 미치지 어려운 곳이었다. 이러한 연해와 내륙의 차이, 또 연해 내륙 내 각 지역의 차이는 복건 각 지역에서 발생한 變亂의 빈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 5. 맺음말

16-17세기 복건지역은 정치적으로 통제력의 이완, 군사력의 약화로 중앙정부의 침투도가 약화되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변화가 많은 시기였다. 즉 상공업이 발달하고, 인구의 이동, 풍속의 변화 등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현상은 복건 전성적인 것이었으나,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은 변화의 정도와 심도에 있어 차이가 나고, 또 내륙과 연해 내에서도 지역마다 상황이 달랐다.

우선 지형적인 요소로 인하여 내륙지역은 주로 廣東·江西·浙江 등 내륙과의 연결성이 강하고 연해지역의 府들은 바다를 통한 海上과의 연결성이 강하다. 또 沿海府와 內陸府 내에서도 다소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省城이 있는 福州과 福寧州가 하나로 묶일 수 있을 것이다. 興化府는 지역의 면적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좁은 쪽이며 福州府와 泉州府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특별히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기는 어렵고 福州府쪽 泉州府쪽과 관련을 함께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지역은 泉州·漳州에 비해 토지가 비옥하고 식량의

---

이 지역에서 토지를 경작하는 복건인 중 建寧·寧化人이 10에 7, 8이고 上杭·連城이 10에 2, 3이라 하여 정주인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魏禮, 《魏季子文集》 권 8, 「與李邑侯書」)

자급이 이루어진 지역이며 해상무역도 泉州·漳州에 비해 덜 성행하여 이들 지역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어느 정도 가진 지역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특히 방언의 측면에서도 이 지역은 福州의 閩東語, 泉州의 閩南語와 구분되는 독자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泉州府와 漳州府는 福州과 福寧州와는 언어적인 면에서나 상공업 발달 수준 등에서 구분된다. 泉州와 漳州府도 서로 구분되는 특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유사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 하나의 권역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다.

내륙지역의 경우는 우선 지리적으로 볼 때 汀州府는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점이 있다. 汀州府를 관통하는 汀江은 복건성의 다른 강과는 달리 광동성으로 흘러 들어가는 韓江으로 연결되는데,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복건성에 대한 구심력을 상당히 약화시키기 계기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지역은 복건의 다른 지역과보다는 광동성과의 교류가 더 많은 지역이었다. 內陸의 나머지 3府도 경제적·문화적 수준, 또 국가권력의 침투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水溪로 볼 때는 연결되어 있고 이 지역들은 역시 강서지역과의 물자와 인구의 유동이 많은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lt;표 1&gt; 明代 福建 各 府의 稅糧

	戶口數			稅糧(石)		戶當稅糧數		
	成化	嘉靖隆慶	明末	成化	明末	成化	嘉慶隆慶	明末
福州府	95,335	78,980	98,984	138,504	166,500	1.45	2.1	1.68
福寧州	20,363	12,260	10,375	28,495	28,500	1.4	2.32	2.74
興化府	31,687	24,420		67,171	67,000	2.11	2.45	
泉州府	41,152	33,330	48,704	109,845	119,000	2.66	3.57	2.44
漳州府	49,354	35,090		116,027	116,000	2.35	3.30	
建寧府	112,142	105,6004	120,915	186,052	163,000	1.66	1.54	1.34
邵武府	39,621	6,190	40,750	62,138	62,000	1.56	1.71	1.52
延平府	63,584	53,130	65,127	84,573	86,000	1.33	1.61	1.32
汀州府	43,271	35,090	39,779	84,567	33,780	1.95	0.96	0.84

<出典>《八閩通志》 권 20-21 食貨, 戶口·土田;梁方仲編, 《中國歷代 戶口·田地·田賦統計》;陳景盛, 《福建歷代人口論考》, 福建人民出版社, 1991.

<備考>成化年間の 戶口와 稅糧은 《八閩通志》에 의거한 것이다. 嘉靖·隆慶年間の 戶口와 稅糧은 梁方仲의 통계 甲表 73의 各 縣의 里數에 의하여 산출해 낸 것이다. 그런데 이에 의한 戶口 계산은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陳景盛의 책 <표 7>~<표 15>에서 명말의 各府 호구수를 추출하였다. 그런데 陳景盛의 통계에는 일정시기 全省의 수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福州府는 萬曆 6년(1578), 福寧州는 萬曆 40년(1612), 泉州府는 萬曆 36년(1608), 建寧府는 嘉靖 11년(1532), 邵武府는 萬曆 41년(1613), 汀州府는 天啓 3년(1623), 延平府는 隆慶 6년(1572)의 것을 이용하였다. 明末의 稅糧은 梁方仲의 乙表 44에 나와 있는 崇禎年間 各府의 糧額이다. 호수는 嘉靖·隆慶年間이고 稅糧은 崇禎年間으로 시기에 차이가 있으나, 乙表 43과 45의 天順年間の 세량액, 明末의 세량액도 崇禎年間の 것과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양자를 함께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lt;표 2&gt; 明清時代 福建各府의 戶口數

	成化戶	成化口	明末戶	明末口	嘉靖隆慶戶	乾隆口	道光口
福州府	95,335	282,573	98,984	265,440	78,980	246,585	2,706,645
福寧州	20,363	167,933	10,375	44,383	12,260	54,766	793,378
興化府	31,687	180,006			24,420	133,509	562,172
泉州府	41,152	180,813	48,704	190,143	33,330	136,910	2,521,684
漳州府	49,354	317,651			35,090	181,991	3,594,271
建寧府	112,142	433,585	120,915	410,099	105,600	264,060	3,250,301
邵武府	39,621	132,282	40,750	131,348	46,190	127,982	646,017
延平府	63,584	236,325	65,127	245,926	53,130	221,414	868,869
汀州府	43,271	254,873	36,174	210,960	35,090	210,545	1,546,984
永春州						32,974	506,358
龍巖州						46,236	342,885
총계	496,509	2,186,041			424,090	1,656,972	17,339,564

<出典>《八閩通志》 권 20-21 食貨, 戶口·土田; 乾隆 2년, 《福建通志》 권 12 田賦, 권 13 戶役; 梁方仲編, 《中國歷代 戶口·田地·田賦統計》; 陳景盛, 《福建歷代人口論考》, 福建人民出版社, 1991.

<備考> 成化年間の 戶口는 《八閩通志》에 의거한 것이다. 明末의 戶口數는 陳景盛의 책 <표 7>~<표 15>에서 명말의 各府 호구수를 산출해 낸 것이다. 그런데 陳景盛의 통계에는 일정시기 全省의 수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福州府는 萬曆 6년(1578), 福寧州는 萬曆 40년(1612), 泉州府는 萬曆 36년(1608), 建寧府는 嘉靖 11년(1532), 邵武府는 萬曆 41년(1613), 汀州府는 天啓 3년(1623), 延平府는 隆慶 6년(1572)의 것을 이용하였다. 嘉靖·隆慶年間の 戶數는 梁方仲의 통계 甲表 73에 의거한 것이다. 梁方仲의 통계는 동일 시기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통계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그러므로 陳景盛, 《福建歷代人口論考》에 나와 있는 명말의 各府의 인구를 수록하여 梁方仲의 것과 비교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양방중의 통계수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道光年間の 人口는 陳景盛의 책, 133-34쪽 <표 16>에 의거한 것이다,

<표 3> 明清時代 福建各府의 口當土地數·耕地率·人口密度

	土地		口當 土地		耕地率 (乾隆)	人口密度	
	成化	乾隆	成化	乾隆		乾隆	嘉慶
福州府	24,814	26,754	8.7	10.85	178.4	164.4	165.08
福寧州	5,139	4,947	7.5	9.03	54.9	60.9	83.52
興化府	13,707	14,293	7.6	10.70	366.4	342.3	126.52
泉州府	16,984	14,402	9.3	10.51	192.0	182.5	317.52
漳州府	12,372	10,663	3.8	5.86	104.5	178.4	327.13
建寧府	26,533	22,575	6.1	8.55	156.8	183.4	221.76
邵武府	10,167	9,514	7.6	7.43	103.6	136.4	70.11
延平府	11,405	10,896	4.8	4.92	75.7	153.7	59.26
汀州府	14,048	13,285	5.5	6.30	75.8	121.0	85.40
永春州		4,830		14.64	94.7	64.6	76.46
龍巖州		2,947		6.37	40.9	64.2	45.61

<出典>《八閩通志》 권 20-21 食貨, 戶口·土田;乾隆 2년, 《福建通志》 권 12 田賦, 권 13 戶役;梁方仲編, 《中國歷代 戶口·田地·田賦統計》.

<備考> 成化年間の 전토는 《八閩通志》에 의거한 것이다. 乾隆年間の 토지는 乾隆 《福建通志》 권 13, 戶役に 의거한 것이다. 경지율은 乾隆 《福建通志》에 기록된 각부의 토지수를 梁方仲의 甲表 88에 기록된 복건 각부의 면적을 건륭년간의 인구수와 대비하여 도출한 것이다. 嘉慶年間の 인구밀도는 梁方仲의 甲表 88에 의거한 것이다.

<표 4> 明代 各府別 官職數와 種類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福州	4	1	1	1	1	1	1					
興化	2			1	2	1		1		1	1	1
泉州	4	1(0)	1(0)	2	2	1		1(0)	1(0)			
漳州	4			1	1	1		1		1	1	
建寧	4			1	1		1(0)	1		1	1	
邵武	2			1				1(0)				
延平	4			1	1		2(0)	1				1
汀州	0			1	1							

<出典>《閩書》 권 50-64, 文莅志.

<備考>가는 각 府에 배정된 訓導, 나 는 織染局大使, 다 는 織染局副使, 라 는 倉大使 마 는 倉副使, 바 는 驛丞, 사 는 遞運所大使, 아 는 稅課司大使, 자 는 稅課司副使, 차 는 雜造局大使, 카 는 雜造局副使, 타 는 河泊所河泊官을 표시한 것이다.()안의 수는 관직의 폐지로 《閩書》가 편찬된 당시에 현존한 수이다.

&lt;표 5&gt;明代 各 府下 縣의 官職 設置狀況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福州	9	7(6)	6	9	9	16	7	7	4	3(2)	5		7(6)	12(11)
福寧	2	2	2	2	2	4	1	1		1	1			2
興化	2	2(1)	2(1)	2	2	4(3)	1	1	1	1	3		1	7
泉州	7	7(3)	7(4)	7	7	12(11)	6	6	5		3(2)	8(4)	4	20(15)
漳州	7	5	5	7	7	11	6	6	1	1			2	9
建寧	8	8(7)	8(6)	8	8	16(15)	6			7	2		8(7)	9
邵武	4	4	4	4	4	8	3	3		3(1)	2		6(5)	2
延平	7	6(5)	7(6)	7	7	13	5	2	1	7(0)	4(0)		7	12(10)
汀州	8	7(5)	6	6	7	11	7	7					2	9

<出典>《閩書》 권 50-64, 文莅志;萬曆 《福寧州志》 권 8, 歷官.

<備考>가는 縣의 數, 나는 縣丞, 다는 主簿, 라는 典史, 마는 敎諭, 바는 訓導, 사는 僧會司僧會, 아는 道會司道會, 자는 倉大使와 倉副使, 차는 稅課司大使, 카는 河泊所河泊, 타는 鹽課司大使와 副使, 파는 驛丞, 하는 巡檢司巡檢을 각각 가리킨다. 《閩書》에 장주부의 寧洋縣과 詔安縣 海澄縣과 福寧州가 누락되었다. 福寧州의 수치는 《福寧州志》에 의해 보충하였고, 장주부의 누락된 부분은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장주부의 縣數를 7개로 기록한 것은 위의 3개현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 〈丑 6〉 明代福建都司所屬衛所兵額

衛所名稱	所在地	原額	現存額
福州中衛		5,718	3,238
福州左衛	福州府	6,720	4,316
福州右衛		7,491	4,131
興化衛	興化府	6,189	1,076
泉州衛	泉州府	6,147	1,580
鎮東衛	福清縣	8,687	2,199
梅花守禦千戶所	長樂縣	1,458	731
萬安守禦千戶所		1,499	1,008
平海衛	興化府附近	5,516	1,172
莆禧守禦千戶所	莆田縣	1,221	1,027
永寧衛		6,935	2,177
崇武守禦千戶所	惠安縣	1,221	814
福全守禦千戶所	晉江縣	575	133
高浦守禦千戶所	同安縣	1,258	789
金門守禦千戶所	同安縣	1,535	692
中左守禦千戶所	同安縣	1,204	684
福寧衛	福寧州	5,600	1,526
定海守禦千戶所	連江縣	1,520	889
大金守禦千戶所		1,120	804
漳州衛	漳州府	4,900	768
龍巖守禦千戶所	龍巖縣	1,180	331
南詔守禦千戶所	詔安縣	1,180	290
鎮海衛	漳浦縣	4,900	763
陸鰲守禦千戶所	漳浦縣	1,190	480
銅山守禦千戶所	漳浦沿海	1,190	367
懸鐘守禦千戶所	詔安縣	1,190	332
總計		87,344	32,326

〈出典〉 《閩書》 권 40, 捍國志.

## &lt;표 7&gt; 明代 福建行都司所屬衛所兵額

衛所名稱	所在地	原額	現存額
建寧左衛	建寧府	5,600	
建寧右衛		5,600	
浦城守禦千戶所	浦城縣	1,120	
延平衛	延平府	5,600	3,732
將樂守禦千戶所	將樂縣	1,120	
永安守禦千戶所	永安縣	1,120	680
邵武衛	邵武府	4,480	2,085
汀州衛	汀州府	4,480	
上杭守禦千戶所	上杭縣	1,080	2,300
武平守禦千戶所	武平縣	1,300	
總計		31,500	

<出典>《閩書》 권 40, 捍圉志와 朱維幹, 《福建史稿》, 下, 169-172쪽.

<備考>《閩書》에 福建行都司所屬 衛所兵額의 原額은 누락된 부분이 있으므로 누락된 부분은 朱維幹의 통계를 인용하였다.

<丑 8> 明末 福建各地 防禦體制와 武官의 管轄地域, 管轄軍隊

	管轄軍隊	所在地	武官
北路參將	福寧衛所軍 陸營兵(浙營 1 土營 2) 烽火寨 小埕寨 臺山遊 埕山遊 五虎遊	福寧州 福寧州 福清縣 連江縣 福寧州 섬 福寧門戶 閩縣	參將 欽依把總 2 各色把總 5
中路游擊	福州 興化 平海 泉州 永寧 鎮東衛所軍 興泉 2府陸兵 興化前營 興化左營 平海右營 泉州新營  南日寨 海壇遊 湄洲遊	福興 泉州 興化府 興化府 興化府 泉州城北門 外 興化府 福清海壇山 莆田縣	游擊 1 欽依把總 2 各色把總 5
南路參將	漳州 鎮海衛所軍 銅山寨 漳州陸營 前部中營 前部右營 前部左營	詔安縣 漳州府西門 外 陸繫所 銅山沿海	參將 欽依把總 1 各色把總 3
泉南游擊	浯嶼寨 浯銅遊 鴻江遊 澎湖遊	同安縣 남쪽 同安縣	游擊 欽依把總 2 各色把總 2
協守漳潮 南澳 副總兵	漳州 潮州의 海域 福營 南澳遊		副總兵 欽依把總 2
建寧守備	建安 甌寧 建陽 崇安 地域 土營	建寧府	守備 1
汀漳守備	汀州 漳州地域	武平縣	守備 1

<出典>《閩書》 권 40, 捍圉志.

<備考>泉南遊擊은 천계년간 창설된 것으로 그 아래 浯嶼寨는 원래는 南路參將하에 있던 것이다. 만력 4년에 南澳가 복건 광동의 경계에 속하므로 방비가 절실하여 副總兵을 주재하게 하였다.

&lt;표 9&gt; 明代 福建 各府 進士表

	福州	福寧	興化	泉州	漳州	建寧	邵武	延平	汀州
洪武	60	7	19	16	3	20	3	3	3
建文	5	1	3			5			
永樂	99	9	37	29	14	29	4	5	14
宣德	17		7		2	1	1		1
正統	25	1	15	2	10	1	3	2	1
景泰	15		15		5	1	1		
天順	19	1	20	3	6	1		2	1
成化	74	2	65	9	15	10	2	4	5
弘治	31	1	42	24	7	5	1	1	5
正德	37	2	2	22	7	6	1	6	2
嘉靖	142	3	111	90	145	14	3	3	3
隆慶	9		6	33	11	4		2	1
萬曆	71	2	61	172	130	15	5	5	3
天啓	8	1	7	25	19	1	1	1	
崇禎	27	1	23	76	28	4	1	2	3
合計	639	31	433	521	402	117	26	36	41
縣數	10	3	2	7	10	8	4	7	8
平均	63.9	10.3	216.5	74.4	40.2	14.6	6.5	5.1	5.1

<出典> 乾隆 《福建通志》 권 36, 選舉志.

&lt;표 10&gt; 明清時代 福建의 寇

시기	福寧	福州	興化	泉州	漳州	汀州	延平	建寧	邵武	合計
1436-1464 正統1-天順8	3	2		5	3	5	8	7	2	35
1465-1505 成化1-弘治18	1	1	8	4	5	3	4		2	28
1506-1521 正德1-正德16		1	4	7	3	5	4	1	3	28
1522-1551 嘉靖1-嘉靖30	3	3	1	8	7	8	2		1	33
1552-1566 嘉靖31-嘉靖45	12	17	10	32	48	19	13	8	7	166
1567-1619 隆慶1-萬曆47	3	2	1	3	10		1	2	1	33
1621-1643 天啓1-崇禎16	1	2	2	6	19	7	1		4	42
1644-1661 順治1-順治18	1	5	6	15	42	38	14	5	27	153
1662-1683 康熙1-康熙22		2	4	12	14	5	3	1	11	52
1684-1721 康熙23-康熙60		1		1	9	1	1			13
1723-1795 雍正1-乾隆60			1	2	5			1		9
총계	24	36	37	95	165	91	51	25	58	582

<出典> 道光 《福建通志》 권 267, 明外紀와 268, 國朝外紀.

<備考> 1. 각 府別 寇變의 횟수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거하여 계산하였다.

(1) 한 府에서 다른 府로 침입해 들어간 것은 始發地域과 侵攻地域을 각각 1건으로 산정하였다. (2) 동일시기에 한 府의 여러 현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은 1건으로 처리하였다. (3) 한 府에서 동일한 사람이 인접한 다른 시기에 다시 寇變을 일으킨 것은 각각 1건으로 파악하였다. (4) 鄭成功의 抗清勢力이나 倭寇 등의 침입이 있을 때 각 府에서 호응한 것은 각각을 1건으로 취급하였다.

2. 嘉靖年間을 嘉靖 31년 전후로 분리한 것은, 가정 31이 倭亂이 본격화된 시점이기 때문이다.